

# SK케미칼, 친환경 산화방지제 개발

## 상수도관 부식억제용 DTC 생산시설 증축 ... 공동주택 설비 시장 공략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상수도관의 부식을 억제하는 친환경 산화방지제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공급한다. SK케미칼은 4월부터 수원에서 음용수 시설처리제 DTC(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s)의 상업생산 공장 증축에 들어갔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SK케미칼이 생산·공급하는 DTC는 환경부 구분에 의해 방청제 1종2호인 인산염계 액상 제품이며,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음용수처리관련 설비 및 약제에 대한 인증기관)에 등록된 제품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다.

SK케미칼 관계자는 “DTC는 음용수 배관의 부식억제를 통해 유해한 중금속 오염을 막아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적 측면에서 설비수명의 연장과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2004년 판매량 850톤을 목표로 제품 개발 1년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한편 2006년에는 매출 100억원 달성과 향후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수출과 국내 정수장 진입을 통한 대단위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SK케미칼 SKYBIO팀은 수처리제 기반기술과 주거환경케미칼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DTC 환경에 최적의 효과를 내고 있는 제품을 생산해 2001년부터 국내에 공급해 왔으며 2002년 판매량 100톤, 2003년에는 450톤을 기록했다.

DTC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SKYBIO 조창목 팀장은 “현재 국내 전체 인구가 4700만명, 1인당 하루 175리터의 물을 사용함을 감안할 때 한해 600억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시장만을 겨냥해도 300억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가정용 주거설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동주택 시장 중 DTC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시장은 40억원, 잠재시장은 260억원으로 추산되며, 공동주택 확대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으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20>